

가계대출 억제... 서민 울리는 금리 인상

은행권, 여신심사 강화하며 대출금리 인상...1월 3.13%

아파트 중도금 대출 1년세 2%p ↑... '쥘기' 다시 고개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에 편승해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15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까지 떨어졌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 달에는 3.13%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금리상승은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린 결과다.

특히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경우 5%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일년 사이 2%포인트 정도 올랐다. 일반적으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중도금 대출은 은행들이 때일 열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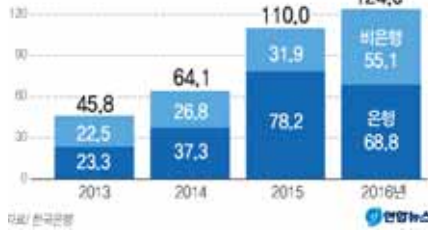
거의 없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다. 하지만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자 은행이 대출을 줄이는 대신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 결과 올 들어서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은행 등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는 주택거래 감소와 함께 정부의 대출억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1000억원에 그쳤다. 지난 2014년 1월(-2조2000억원) 이후 3년만에 최소 증가폭이다.

문제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은행이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이를 빌미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분양을 앞둔 아파트들이 집단대출

가계대출 증가 현황 (단위:조원)



은행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90%의 계약률을 넘긴 사업장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집단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지역 건설사 한 임원은 "건설사들이 관리해야 할 분양 수익금 통장을 내놔야 대출 승인을 해주겠다는 등의 과도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형사에 비해 신뢰도가 낮은 우리로서는 결국 2금융권을 찾거나 계약자들에게 개인신용대출을 앞선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집단대출의 경우 중도금은 분양가 중 계약금(10%)과 잔금(20~30%)을 제외한 60~70%를 차지한다. 분양가 3억원인 아파트 1000가구를 분양할 경우 대출금리가 연 1%포인트 상승하면 입주자 부담이 18~24억원 증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은행들에선 고금리는 물론 기타 예금까지 요구하는 이른바 '쥘기' 관행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가뜩이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대출 받기가 쉽지 않은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예금을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대출수요를 억제하는 규제효과를 이용해서 금리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은행들이 겉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외치면서 뒤로는 실속만 챙기는 부도덕한 영업 행위"라고 말했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83.86 (+9.29)
- ↑ 금리 (국고채 3년) 1.66% (+0.01)
- ↑ 코스닥 615.95 (+4.41)
- ↑ 환율 (USD) 1142.20원 (+4.80)

1월 제조업 취업자 16만명 감소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실업률 9개월만에 최고치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가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25만명 밑으로 떨어졌고 전체 실업률은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1월 취업자는 2천56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3000명 늘었다.

이는 22만3000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던 지난해 2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정부가 올해 전망한 29만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33만9000명을 기록해 3개월 만에 30만명대로 올라섰지만, 지난해 12월 28만9000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25만명 밑으로 떨어지며 2개월째 20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가 16만명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은 2009년 7월 17만3000명 이후 7년6개월 만에 최대다.

산업별로는 건설업(8만5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4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제조업을 비롯해 운수업(-3만7000명), 농업어업(-9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자영업자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9

천명 증가해 2012년 7월(19만2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로 50세 이상 장년층 취업이 지연되어 이어진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1월 고용률은 58.9%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3%포인트 상승한 65.5%였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8%로 0.1%포인트 올랐다.

1월 전체 실업률은 0.1%포인트 상승한 3.8%로 지난해 4월 3.9%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1월 실업자 수는 100만9천명으로 7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1월 기준으로 2010년 1월 이후 최대다.

청년층 실업률은 8.6%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기업의 채용 수요가 위축되자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점이 역설적으로 청년층 실업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의 실업률이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오른 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1월에 지역별로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고연령층의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올라간 것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분양시장 실수요자 중심 재편

청약자 35% "내 집 마련"... 지난해 하반기보다 7.4%p ↑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은 투자 수요가 줄고 실수요가 이끔면서 청약경쟁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만 20세 이상 회원 749명을 대상으로 지난 6~12월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 소비자 선호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약 이유로 '내 집 마련'을 꼽은 응답자가 34.6%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하반기(27.2%)보다 7.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작년 하반기에는 전매로 되팔려는 투자용이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다.

당첨 뒤 전매제한 해제 전후로 되팔려고 청약한다는 응답은 30.8%였고 새 아

파트로 갈아타기 위해서라는 교체 수요가 29.8%, 자녀 등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서가 4.8% 등의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가 청약하기에 어떤 시기인지 물으니 "나쁜 때"라는 응답이 37.7%로, "좋은 때"라는 응답(25.5%)보다 많았다. 나쁜 때라는 응답은 6개월 전보다 19.4%포인트 늘었고 좋은 때라는 응답은 19.4%포인트 줄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달라진 청약요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질문에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29.7%에 불과했고 '대충 알고 있다'가 60.6%에 달했다. '모른다'는 응답도 9.5%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자동차(주)는 올 뉴 모닝에 대한 고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지난 1월 공식 출시한 기아차의 대표 경차인 올 뉴 모닝을 무료로 시승할 수 있는 '기아자동차 모닝 토크 & 드라이빙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아 뉴 모닝 시승 이벤트

기아자동차는 15일 고객들로부터 사연을 접수받아 무료 시승 기회를 제공하는 '기아차 모닝 토크 & 드라이빙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달 출시된 '올 뉴 모닝'을 체험해보고 싶은 만 21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기아차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 28일까지 시승 신청 사연을 적어서 응모하면 된다.

기아차는 신청자 중 50명을 추첨해 모닝 1박2일 체험권과 5만원 상당의 베이커리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 매일 50명씩 추첨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증정한다.

시승 당첨자는 3월3일 기아차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시승 이벤트 당첨자 중 개인 SNS에 시승 후기를 작성하는 고객 중 5명을 선정해 JBL 블루투스 스피커를 증정하는 시승 후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금호타이어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의 운송기기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금호타이어는 2개 제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제품은 스포츠 세단을 위한 고성능 타이어인 '엑스타 PS71'과 혁신적 기술을 담은 미래형 컨셉타이어 '스매서'다.

엑스타 PS71은 고속 주행안정성과 핸들링 성능이 탁월해 고급 스포츠 세단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극한의 도로환경에 특화된 스매서는 주행이 불가능한 환경에서의 주행도 가능하게 하는 컨셉의 제품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LH, 저소득층 임대 다가구주택 640가구 매입

LH 광주전남지역분부는 올해 저소득층 등 임대를 위해 다가구주택 640가구를 매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마다 매입물량은 광주 동구 110, 서구 100, 남구 100, 북구 53, 광산구 100, 전남 광양 7, 나주 20, 목포 70, 무안 10, 순천 50, 여수 20가구 등이다.

LH는 매도 신청가구를 상대로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가를 정한다.

LH는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게 시중 임대료 30% 수준을 받고 임대한다.

LH 광주전남지역분부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4천926가구를 매입·임대 중이다.

다가구주택 매도 신청은 3월 31일까지 지역분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문의는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 62-360-3251·3276.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한골프협동조합과 함께 골프, 리조트 한번에 다 누리세요!!

KGC
Korea Golf Coop
대한골프협동조합

회원가입 절차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제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제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협동조합

골프장 선불회원 컨설팅 사업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회 공헌사업
골프협회 육성/골프장나무 지원

화순CC | JNJ | 영광CC | 아크로 | 화순엘리체

국내 최초 골프협동조합 탄생!!

보성CC | 디오션 | 함평엘리체 | 제주 | 고향

레저 이용혜택!!

영도라도리조트, 무주로비스콘도, 서해안변산
서해안대천, 담양메타펜션, 제주골프빌
화순, 속초, 제주, 송두 글호리조트

KGC 대한골프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치평동 890-12) ☎(062)371-1800 · 010-6270-1879

특허방수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2중압박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천제품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2/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나 잔디나니와의 플라보 디자인!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스템!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
겨울철 실내온도: 3~5°C ↑
전기로 30~40% ↓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탈렌트 이영 후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